

- | | |
|--------------------|------------------|
| ▶ 국회의원 선거구 : 장흥 영암 | ▶ 소방서 : 장흥 보성 |
| ▶ 법원·검찰 업무 : 장흥 강진 | ▶ 농수산 업무 : 장흥 보성 |
| ▶ 세무서 : 장흥 해남 강진 | ▶ 국민연금공단 : 장흥 해남 |

“장흥에 살기 참 햇갈려요”

장흥을 비롯한 전남 중남부 지역을 관할하는 공공기관들의 관할 구역이 행정편의의 의해 제각각이어서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장흥 지역은 입법(선거구), 사법

는 보성·장흥(보성소방서 장흥과 출소), 해양수산은 장흥·보성(장흥해양수산사무소 보성지소), 농 산물품질관리원은 보성·장흥, 국 민연금공단은 해남지점 등에 속해 있다.

이와 함께 내년으로 설립 100주년을 맞는 장흥지원과 장흥지청의 관할구역 재조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흥지원과 지청의 연간 민·행사 사건 처리건수는 고작 1천300여 건으로 전국 42개 지원·지청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순천지원·지청 관할인 보성지역 일부 주민들이 90년대 이후 동일 생활권을 근거로 법원과 검찰 관할구역을 장흥으로 옮겨 달라는 청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장흥지원과 장흥지청은 설립 100년을 기리기 위해 장학회 설립 등 상징성 있는 행사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자 kykim@

공공기관 관할구역 달라 주민 불편

국회의원 선거구·법조 재조정 시급

(법원·검찰), 일반 행정기관이 다른 지자체와 얹혀져 있어 관련 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이 저하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장흥과 영암이 한 선거구인데 반해 해당 지역 법원 판사가 맡는 군 선거관리위원회장 등 법원·검찰업무는 장흥과 강진으로 뿐이다.

또 세무서는 해남·강진·장흥(해남세무서 강진지소)으로, 소방서

거구와 법조 관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흥과 영암이 동일한 선거구 인데도 군 선거관리위원회장은 해당 법원 판사가 맡는다는 원칙때문에 영암군 선거위원회장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가 맡고 있다. 반면 강진군은 선거구가 다른데도 장흥지원 관할이라는 이유로 장흥지원 판사가 선거위원회장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전남 주민 건강증진 사업 평가

함평군보건소 2년 연속 최우수

함평군보건소(소장 유경순)가 지난 23·24일 이를 간 나주 종흥골드스파 리조트에서 열린 전라남도 주민건강증진사업 최종 평가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군에 선정됐다.

주민건강증진사업은 고혈압, 당뇨, 암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과 지역의 건강 행태변화와 건강 실천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지역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함평군보건소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 가꾸기를 테마로 임산부 영유아·영양사업과 청소년 몸짱 건강교실, 장년층 베살 줄이기 교실(시진) 등을 전개해 왔다.

또 개인별 금연클리닉과 비만관리, 운동처방지도 등 다양한 웨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민건강 걷기대회, 전국 실버댄스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군민 건강 향상에 적극 노



력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건강증진센터의 영업 시간은 평일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주말에도 개방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보건소는 올해도 행복 충전 건강대학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인삼밭에 그물치기



인삼 재배 농민들이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 둘녘에서 인삼 씨앗을 뿐 뒤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해 그물을 치고 있다. 인삼은 파종 후 6년의 재배 기간을 거쳐 출하하게 된다.

/위직령기자 jrwi@kwangju.co.kr

‘농업인력 뱅크제’ 운영

담양군, 농번기 농촌 일손 지원

담양군이 농번기에 부족한 농촌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인력 뱅크제’를 운영한다.

농업인력 뱅크제란 담양군 농업기술센터가 일손이 부족한 시설하우스 등 원이나 과수농가에게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인력소개 사업으로 일손 제공자의 일당(2만5천~3만원선)은 농가에서 부담한다.

이 제도는 담양지역 원예, 과수농가가 적기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운영하는 것으로 활성화되면 고질적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손이 필요한 농가나 구직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주로 팔기와 토마토 수확, 선별 작업 등에 투입된다. 현재 인력뱅크에 등록된 구직자는 60여명에 이른다.

담양군 관계자는 “인력뱅크에 등록된 구직 대기자를 위한 일자리를 우선 물색 중”이라며 “일자리 문의와 접수는 농업기술센터나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수시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임산부님 119 누르세요”

영암소방서, ‘도우미제’ 운영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는 119를 누르세요.”

영암소방서가 병·의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한 오지 농어촌 임산부를 위한 ‘119 임산부 도우미제’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119 임산부 도우미제’는 영암군내 거주중인 임신 5개월 이상인 임산부나 병원에 다니기가 불편한 임산부가 그 대상으로, 영암소방서에 사전 예약하면 집에서 병원까지는 물론 진료가 끝난 뒤

집까지 다시 이송해 주는 제도다. 영암소방서는 또 공휴일과 약국이 문을 닫는 밤 8시 이후엔 급성질환자를 위한 ‘응급의품 무료 배달제’도 운영한다. 이 두 서비스를 원하는 임산부나 병성질환자는 영암소방서(061-460-0881)로 문의 또는 예약하면 된다.

박용관 영암소방서장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혜택이 낮은 지역주민을 위해 이 두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장성군, 334억 투자유치

415명 고용 창출·516억 매출 기대

4개 업체와 협약 체결

장성군이 4개 업체로부터 334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장성군은 28일 전남도청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이정 장성군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 체결식을 갖고 4개 업체와 33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 협력업체로 장성군 홍릉면에 있는 렉스프로풀은 214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삼서면으로 확장 이전하기로 했다. 전북 김제시의 신화씨

비스산업은 홍릉면에 50억 원을 들여 위생용 종이제품 공장인 신화지에스 앱을 설립한다.

광주시 광산구에 공장을 둔 신화엔지니어링은 동화면에 50억 원을 투자해 건설기계 및 부품공장인 튜텍을 설립할 계획이다.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지씨아이는 20억 원을 들여 광주시 서구에서 동화면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로 했다.

장성군은 이들 4개 업체의 투자유치로 415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연간 516억 원의 매출이 새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전남도는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장성군은 행·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정 군수 취임 이후 한달만에 대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며 “올해 나노지방산단과 동화전자농공단지가 본격 조성되면 투자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더 많은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성=장필수기자 bungy@

독거노인 목욕 봉사

녹동 농협 주부모임



녹동 농협 ‘고향생각 주부모임’ 회원들과 농협 지도계 직원들이 최근 관내 50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회원들은 도시락 만들기와 가사도 우미 등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이같은 봉사활동을 벌였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

영암관련권을 드립니다

제17973호

2008년 1월 29일 화요일 광주일보

국회의원 선거구 : 장흥 영암

법원·검찰 업무 : 장흥 강진

세무서 : 장흥 해남 강진

소방서 : 장흥 보성

농수산 업무 : 장흥 보성

국민연금공단 : 장흥 해남

장흥에 살기 참 햇갈려요

임산부님 119 누르세요

농업인력 뱅크제 운영

장성군, 334억 투자유치

415명 고용 창출·516억 매출 기대

4개 업체와 협약 체결

독거노인 목욕 봉사

녹동 농협 주부모임

SONY 모니터